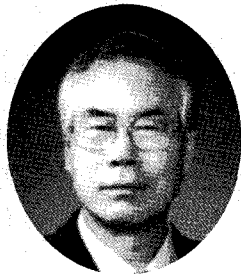


한국 수의(獸醫) 발달사(3)



경기도 수의사회 부회장

이시영

가축전염병의 발생

옛부터 가축전염병의 발생은 있어왔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어떤 원인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사악한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다. 물론 사람의 돌림병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는 오직 무당에게 의존하던가 일관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가축전염병의 발생은 고려시대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이전 혹은 이후에도 많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것이나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 인종 20년(1142년) 서남부 지방에 소와 말의 질병이 대유행해서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의 종식을 위해서 일관(日官)을 파견하여 빌었다는 기록이 있다. 일관이 하는 일은 전편에서 소개한 바 있는 천마사성과 같은 별에게 말의 병을 고쳐달라는 뜻으로 일종의 마조제를 지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몇차례 말이나

소의 전염병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

오늘날의 한우는 몽골지방에서 온 것이라 한다. 이도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소의 전염병으로 많은 소들이 피해를 입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급히 사신이 몽골에 가서 그들 소와 우리의 담배를 바꾸어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636년과 1637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한 우역(牛疫)이 돌아서 많은 소들이 폐사하였다. 소의 힘에 의지하여 농사를 짓던 당시로서는 큰 일이었다. 이에 인조가 1638년 성익(成)을 사절단장으로 몽골에 보내게 된다.

오늘 날의 내몽골지방에 가서 그 곳의 소와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담배와 바꾸어서 가지고 오게 된다. 그때 성익은 담배가 추위와 정신집중에 좋다는 감언이설로 소와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한우는 몽골소의 후예라 할 수 있다. 오늘날도 몽골인들은 망망대해와 같은 초원에서 그때 우리 나라가 전해준 담배와 담배대로서 고독을 이기고 있다.

대한수의

몽골 수의학의 영향

이미 전편에서 몽골의 수의술이 우리나라 수의학에 미친 영향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의학이나 축산학의 용어라 할 수 있는 말의 모색과 관련해서 몽골의 언어들 이 버젓이 우리의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아직도 말의 고장인 제주도에서는 이 용어 들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수의학 서적에도 이의 용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려 때 몽골에서 전해진 몽골의 수 의 용어들이 일본의 신식 수의학이 들어 오기전까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일본이 만든 새로운 서양 수의학의 용어들을 가져 오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아직도 이들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은 말의 모색이나 말 종류를 나타내는 몽골어가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이다.

가라말: 검은 말; 털빛이 검은 말

절따말: 절따마; 접따마; 적다마(赤多馬); 절따; 붉은 말; 붉은 빛깔의 말.

공고라: 주둥이가 검은 누른 빛깔의 말

공골말: 노랑말; 털빛이 누른 말. 황부루

황부루: 공골말; 누르고 흰빛이 섞인 말. 토황마(土黃馬)

악대말: 불 깐말, 거세말

아질게말: 망아지; 어린말

굴형말: 구렁말, 밤색말

간자말: 이마와 뺨이 흰말

부루말: 온몸의 털이 흰말, 백마. 취음 부로마(夫老馬)

고라말: 등에 검은 털이 난 누른 말

총이말: 푸른 빛을 띤 부루말,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한 말, 청총마(靑馬) 청총이 천총마(千馬)

가리온말: 털은 희고 갈기가 검은 말

얼룩말: 워라말; 털빛이 얼룩얼룩한 말. 화마(花馬)

노새: 숫나귀와 암말사이에서 난 변종

길마: 짐을 실으려고 소나 말의 등에 얹는 안장. 길마를 지우다는 길마를 마소의 등에 엮다라는 뜻.

업진: 소의 가슴에 붙은 고기

가탈: 타기에 거북스러운 말의 걸음거리

녹대: 고삐(제주 방언)

쥬리울: 후릿고삐

고들개: 안장의 가슴걸이에 다는 방울, 말 굴레의 턱 밑으로 돌아가는 방울이 달린 가죽. 채찍의 옆 끝에 굵은 매듭이나 추 같이 달린 물건

고들개 채찍: 고들개를 단 채찍.

다갈: 대갈

달구지: 소 한필이 끄는 수레. 짐수레

타락(駝酪): 우유

조선 시대의 자료에 보면 우리 나라 수의사들도 분명이 망아지를 거세했다. 어떤 방법으로 거세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으나 몽골의 유습이나 비방이 한반도 수의학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과거 했던 거세방법이 그대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약 50여년전에 시골에서는 돼지의 거세를 사금파리로 절개해서 고회을 끄집어내고 소금을 한 움큼 넣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왔다. 몽골에서는 돼지라는 동물이 없기에 이는

순수하게 우리 조상들이 터득한 거세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동물 특히 말의 거세술을 준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몽골에서는 현재도 그러하지만 과거에도 메스와 같은 뾰족한 칼 한자루를 들고 한 사람은 망아지를 쓰러 뜨리고 한 사람이 거세를 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한가지 특히 유의할 것은 반드시 불을 피워놓고 사용하는 칼을 소독했다는 것이다. 몽골에서는 오늘날 수의사라는 직업이 있지만 원만하면 목부들이 수의술을 행하였고, 거세도 목부들이 하였다. 아마 이와 같은 망아지 거세방법이 제주도에서 몽골인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을 것이며 우리 수의사들이 그것을 배워 사용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에 기록된 수의술

전쟁에서는 마상에 탄 마병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만 마병을 낙마시키기 위해서는 말에 대한 공격도 서슴없이 해야만 했다. 말만을 공격하는 무기가 바로 마름쇠(鐵疾藜)라는 것이다. 말의 발굽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무기인데 마름모꼴로 만든 뾰족한 쇠붙이이므로 말이 이를 밟으면 발굽의 제차부분이 찢리게 된다. 이도 몽골 기병대가 퇴각할 때 들판에 마름쇠를 뿌려서 적의 말들이 그것을 밟아서 발굽이 상하게 한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때 그 무기를 밟고 발굽이 상한 말들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로 씻어 준다던가 혹은 소금으로 세척해서 굼지 않게 했을 것이다. 비록 수의사에 의해 자행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이 말을 치료한 경우라 할 것이다.

말의 병에 대해서 기록한 조선조 초기의 기록이 있다. 용비어천가 제 109장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말이 병(病)이 깊어 산척(山脊)에 못 오르거늘
군자를 그리샤 금첩(金疊)을 부으려 하시니말이
살을 맞아 마구(馬廐)에 들어오나늘 성종
(聖宗)을 뵈셔 구천(九泉)에 가려하시니”
이 이야기는 조선조 초기 왕자의 난 때 방원의
말들이 병이 들었고 또한 난중에 방원이 탔던
말이 화살을 맞아서 방원의 마구간으로 들어
오는 것을 본 원경왕후가 방원이 전쟁에서
패한 것을 알고 방원과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달려 나가려고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기록을
볼 때 방원이가 전용으로 타던 말이 화살을
맞아서 마구간으로 달려 왔는데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고구려 시대의 고분 벽화의 자료에 보면 이미
당시 가축을 도살해서 고기간에 매달아 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은 요즘 고기간에 고기를
매달아 둔 것과 꼭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때도 돼지나 말 혹은 소의 해부학적인 지식이
충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하나는 삼국시대 특히 한반도
남부 민족중 가락국에서는 말을 순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지금도 고분 출토유물에서
말뼈와 함께 말 장구들이 출토되는데 도부가
되었건 혹은 장군들이 되었던간에 말을 죽이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장하는
말이기에 아무렇게나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죽은 자가 저승으로 향할 때 타고 갈 말이었으며, 내세에 죽은 자가 다시 타고 이승에 올 말이었기에 특별한 상처를 내지 않고 죽었을 것이나 전해지는 기록은 없다. 너무나 많은 말들이 순장대상으로 죽게되자 신라 지증왕 때에는 국법으로 이를 금하게 된다.

즉 소를 도살하거나 말을 순장하였다는 것은 생활의 한 단면이긴 하지만 수의술이 생활속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말을 순장시키는 풍습은 한반도 남부 민족들에게 유행하였으나 고구려에서는 달랐다. 죽은 사람이 타던 말은 죽은 자의 무덤 주위에 버렸다. 그러면 지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좇어 가지고 가기도 했다. 이는 유목민족의 풍습이기도 하다.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은 유목민족의 후예일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상마가라고 했다. 그의 후손인 평강공주도 상마가이면서 말에 관해서 상당한 조예가 있다는 것을 역사에서 기록하여 두었다.

고구려는 북쪽의 유목 기마민족의 영향을 받았기에 말타는 기술이 우수하였으며 또한 대륙과 전쟁이 잦았기에 남부 민족에 비해서 더욱 말을 숭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왕이 타는 말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각종 비리가 등장하게 된다. 말 중에서 대개 성질이 괘괄한 말이 잘 달리게 되는데 이런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있다. 왕이 직접 타고 사냥길에서 말이 날 뛰어서 왕이 낙마라도 하게되면 말을 키웠거나 조교를 한 사람은 목이 열 개라도 붙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주몽이 사용하던 방법으로 좋은 말은 여위게

해서 병이 든 것 처럼 해서 시장에 내다 팔게 된다. 평강공주는 평원왕의 딸로서 온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온달에게 무술을 가르키기 위해서 말이 필요했을 것이고 바보인 온달로서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식견이 없었기에 온달에게 코치를 한다. 살이 찢말을 사지 말것이며 반드시 비루먹은 말 즉 병든 말을 사야하는데 그것도 국마(國馬)중에서 사오라는 것이다. 국마라는 것은 대궐에서 나온 말이라는 뜻이다. 궁중에 있을 때 말 키우는 사람들이 좋은 말에게는 비루먹은 말처럼 병이 들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쟁에서 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

전쟁터에서는 말을 탄 마병을 말에서 끌어 내기 위해서 말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마름쇠도 그것이고 창이나 활로서 말을 겨누는 것 또는 칼로서 말을 쳐서 말을 쓰러뜨리므로서 마병을 낙마시키게 된다. 그래서 마병에게도 갑옷을 입히는 것과 같이 말에게도 갑옷을 입히거나 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면갑(馬面甲)을 씌우기도 하였다. 특히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는 말에게 갑옷을 입힌 경우를 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며, 남부지방 특히 가야국의 유적지에서 마면갑이나 말 갑옷이 많이 출토되기도 하였는데 그중 최근에 출토된 함안의 마갑총(馬甲塚)이 유명하다.

말은 사악한 귀신을 쫓는 역할자이기도 하다.

말은 전쟁용무기로 사용되었지만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말은 용의 자식이므로 어떤 신성성이 있기에 악귀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았다.

우리나라에서 네가지 영수는 용(龍) 기린(麒麟) 봉황(鳳凰) 거북(龜)인데 모두가 가상동물인데 비해서 용의 자식이라는 말만이 현실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동물이면서 영적인 동물의 대우를 받으므로 악귀를 쫓을 수 있는 동물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동리입구에 돌로 만든 석마(石馬)를 세워서 악귀를 쫓게 하였다거나 사찰을 지을 때에 네귀통이에 석마나 철마를 묻어서 사악한 귀신을 쫓도록 하였다. 또한 사찰의 일주문에도 말의 머리를 새겨서 역시 같은 효과를 누리도록 배려한 것이다. 민간에서도 말이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고성(高城)의 석마리에 가면 동리입구에 석마가 있다. 이도 또한 돌림병과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낭당은 곧 동리를 보호하는 신들이 있는 곳이다. 그곳의 신체(神體)가 바로 말이다. 산촌에 있는 서낭당에도 혹은 섬에 있는 서낭당에도 신체는 말이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말이라는 동물이 사악한 귀신을 물리친다는 개념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며,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동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 어쨌든 말이라는 동물이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 특히 사악한 귀신을 물리쳐서 사람의 병을 예방하였다는 것은 수의학 이전의 인간본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말 거세장면

이는 몽골의 사르브라는 사람이 1905년에 그린 것으로 몽골인의 하루라는 그림중 말 거세장면이다. 1905년은 몽골이 사회주의 이전이었으며 당시의 생활상을 그리 것이다. 한사람은 말을 눕혀서 고정하고 있는데 말을 고정하는 방법이 특이하다. 한 사람은 칼과 막대기 두 개로서 거세를 하고 있다. 막대기 두 개사이에 고환을 끼워넣어 짓이겨 끊어내는 것 같다. 옆에는 불이 지펴져 있다. 아마 거세용 기구를 소독하기 위한 것 같다. 오늘날도 몽골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 거세를 한다.



그림 2. 낙타를 거세하고 있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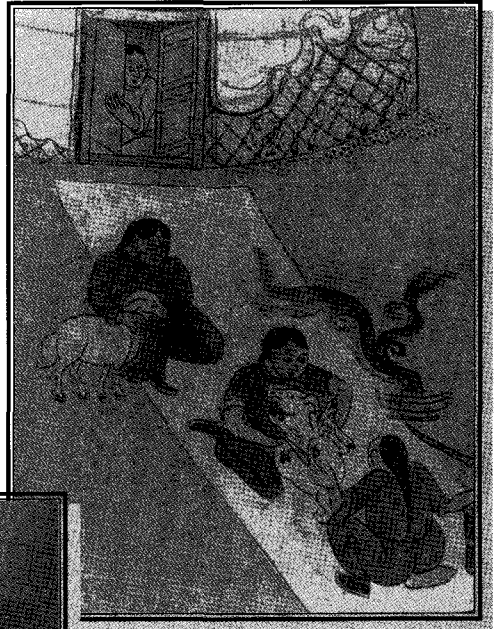


그림 3. 양을 거세하는 장면. 현재 몽골에서는 원만한 양의 질병의 치료는 여자들이 담당하며, 양의 거세수술도 여자들이 많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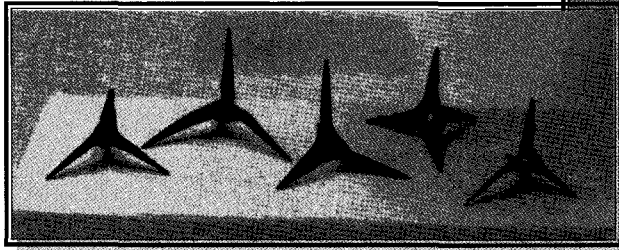


그림 4. 전쟁에서 말의 발을 상하게 하는 마름쇠.



그림 5. 고구려 유적중의 하나인 덕흥리 벽화고분의 행열도중의 일부. 말도 머리에는 마면갑을 그리고 온몸에 철갑을 두르고 있다. 이 그림은 5세기초(408년)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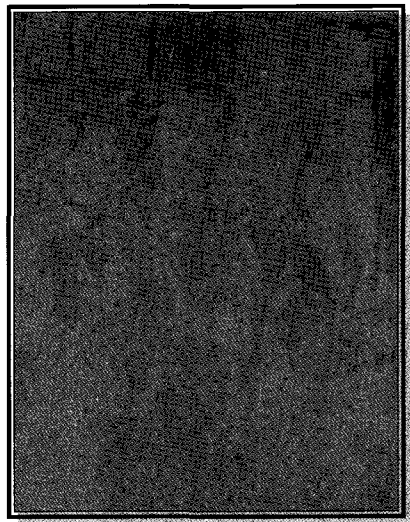


그림 6. 고구려 고분중 안악 제 3호 고분의 벽화중 고기간. 이 그림은 4세기 중엽의 것으로 추정된다.